지식경제부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1년 12월 2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신대섭 산업기술시장과장(02-2110-5395), 권기성 사무관(02-2110-5397)		

「제4차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(2012~2014)」 수립

– 기술시장 성과제고를 위한 개방·성과지향 全주기 R&BD시스템 구축 –

< 제4차 촉진계획 핵심 골자 >

◇ **(기술공급) 창의 비즈니스모델 공모, R&D지원금 출연시 기보 보증평가 연계**
◇ **(기술중개·투자) "사업화 전문회사" 육성, TLO 전문성 제고, 신규펀드 조성**
◇ **(기술수요) 산학연 공동 C&D 프로젝트 발굴, 글로벌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**
◇ **(사업화 인프라) 사업화 코디네이터·명장(年10명) 육성, 사업화 예산 확충**

□ **지식경제부**(장관 홍석우)는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**「제4차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('12~'14년)」**을 수립하여 발표함

□ **「제4차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」**의 **주요 골자**는,

○ **공급 측면**에서 R&D와 시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식기반경제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"**가치창출형 R&BD**(R&D+비즈니스)"**로의 전환**을 위해,

- **R&D 사전기획비 확대, 창의 비즈니스모델 공모사업 신설** 등을 통해 R&D의 질적제고를 도모하고, **정부 R&D 지원금 출연시 기보의 보증평가와 연계**하는 "R&D 프로젝트 금융지원" 제도를 **최초로 도입**

○ **중개·수요 측면**에서 **전문적인 기술이전·사업화 중개서비스**를 제공하고, 기업의 **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기술활용을 촉진**하기 위해,

- 기획·투자 등 사업화 全주기지원형 "**사업화 전문회사**" **육성**, 기술료 인센티브 조정 등 재원 마련을 통해 **공공기관 TLO 전문성** 제고 및 **IP비즈니스펀드(2,000억), R&BD펀드, 대덕특구펀드 등** 신규펀드 조성

○ 또한, 기술사업화 **전문인력 양성, 사업화 예산 확충**(장기적으로 R&D의 3% 수준) 등을 통해 **기술과 시장의 善순환 토대를 마련**하고자 함

< 제4차 촉진계획의 추진배경 및 목표 >

□ **기술이전·사업화 정책**은 기술개발 및 기업성장촉진 정책의 **중간영역으로 추진**되어 오다 **2000년** 「**기술이전촉진법**」 **제정** 및 「**제1차** 기술이전·사업화 **촉진계획**」**부터 본격적**으로 시행되었음

○ 그간 **기술이전·사업화 정책방향**이 '**기술시장 조성**'(제1차, '00~'05년), '**기반확충**'(제2차, '06~'08년), '**全주기지원시스템 구축**'(제3차, '09~'11년)에 **중점**을 두었다면,

○ **금번 제4차**('12~'14년)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**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**을 통해 '**실질적인 시장성과 창출**'에 **주력**하고자 함

* **(기술확산) 공공기관**(대학, 연구소) **기술이전율** : ('10) 23.1% → **('14) 27.0%**
* **(성과창출) 공공기관 이전기술 사업화성공률**(누계) : ('10) 18.3% → **('14) 26.0%**
* **(시장확대) 민간기술거래기관 평균거래규모** : ('10) 0.63억원 → **('14) 1.50억원**
* **(기업성장) 기술도입기업 매출액증가율**(3年평균) : ('10) 12.5% → **('14) 15.6%**

< 제4차 촉진계획의 기본전략 >

□ 금번 **「제4차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」**에서는 R&D와 시장의 불일치, 기술공급과 기술수요 간 미스매칭 등 사업화를 저해하는 **병목현상을 해소**하고, 기술시장 **주체의 역량 강화**를 통한 **성과제고에 집중**할 계획임

* '10년 기준, 국가전체 R&D투자는 OECD국가중 투자규모 7위, GDP대비 비중 3위를 기록하는 등 양적 성장, 기술사업화 등 성과창출 측면은 여전히 취약
·공공기관 기술이전율('10년, %) : (韓) 23.1, (美) 26.4, (EU) 33.5
·기술무역수지 적자(억불) : ('95) 1.8 → ('99) 2.4 → ('04) 2.7 → ('09) 4.9

○ 이를 위해 **①기술과 시장의 연계 활동 강화**(공급측면), **②기술사업화 수행주체 역량 제고**(중개측면), **③융복합 및 개방형혁신 촉진**(수요측면), **④시장메커니즘 작동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**(Infra) 등 **4대 핵심과제**와 14개 세부과제를 제시함

< 제4차 촉진계획의 핵심과제 >

□ 제4차 촉진계획에서는 **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기술자원 공급**을 위해,

○ 우수과제를 **발굴·선정**하기 위해 대형과제, 연계과제(C&D형)에 대해서는 **사전기획비를 지원**하고, 글로벌시장창출형 "**창의 BM**(비즈니스모델) **공모사업**" **신설**을 통해 사업화개발연구 **先기획을 강화**하는 한편,

○ **R&D 자금지원(정부출연)시 보증대출을 연계**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후속 사업화자금까지 지원하는 **"R&D 프로젝트 금융지원제도" 도입** 및 **공공기관의 후속연구를 先지원**(브릿지론)·**後상환**(기술료)하는 시스템(Gap Funding)을 제도화하는 등 기술이전 후 **추가기술개발 지원을 확대**함

○ 또한, **공공기관의 개발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용**하는 "가이드라인"을 제정하고, **기술료 수입에 대한 연구자 인센티브** 지급도 **기술이전 완료 후로 전환**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사후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함

□ 또한, 기술중개기관의 영세성과 공공기관의 전문성 부족을 극복하고 **전문적인 기술이전·사업화 중개서비스** 제공을 통한 **시장성과 제고**를 위해,

○ 사업기획, 기술관리, 사업투자 등 **사업화 全주기를 지원**하는 **'사업화 전문회사'**를 **지정·육성**하고, 기술료 수입의 인센티브 지급비율 조정 등을 통해 **공공기관 기술이전조직**(TLO)**의 전문성을 강화**하는 한편,

* 현행 기술료 수입의 60% 내외를 차지하는 연구자(50%), 기여자(10%) 인센티브를 하향 조정하고,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TLO 운영비 등 기술이전·사업화 재원으로 재투자

○ **창의자본(지식재산회사)**, '15년까지 6,000억원 규모로 조성)을 통해 **IP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활성화**하고, **IP 비즈니스를 위한 특화펀드를 신규로 조성('14년까지 2,000억원)**하며,

○ 각 500억원 규모의 **R&BD펀드**(신성장동력펀드), **연구개발특구펀드를 추가 조성**하는 등 **초기사업화 단계 기술투자를 확대**하고, **'신산업 기술금융 정보센터'**(산업기술진흥원) **개설 등 기술금융 정보 제공을 강화**해 나가겠음

□ 창조적 기술혁신과 도전적 기술활용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**융복합 사업화 및 기업의 개방형 혁신**을 다음과 같이 촉진하고자 함

○ **산학연 공동 C&D**(Connect&Development) **프로젝트 발굴** 및 전용 R&BD 프로그램 설계 등 **융복합 사업화 프로젝트 발굴체계**를 마련하겠음

* 국가차원의 "사업화융합포럼" 정기개최 및 지역차원의 소규모 연구모임(지식 Cell) 활성화를 통해 미래유망분야 융합기술 발굴 및 사업화 시스템 개선

○ 대학의 창업 허브로서 **'기업가센터'**를 **확대**('13년 5개)하고 **대덕특구를 기술창업의 메카로 육성**하는 한편, 지자체 등의 **오디션 방식 R&BD 프로그램을 매칭지원**하고 **기술경영 우수기업을 포상**할 계획임

○ 또한, **선진시장 및 신흥시장 별로** 차별화된 **글로벌협력·사업화전략**을 마련하고, 기술공급자(TLO) 및 국내·외 중개자 컨소시엄의 **十字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**을 통해 기술기반 기업의 **글로벌 성장을 지원**하고자 함

* 기존에는 국내 기술중개기관 간 橫的 네트워크만 지원대상

□ 기술이전·사업화 제도 정비, 인력양성, 기술평가 신뢰성 제고 등 **기술이전·사업화 기반**도 공급자 관점을 지양하고 **시장메커니즘을 보완하는 인프라**로 확대·발전시켜 나갈 계획임

○ **민간역량을 활용**하여 기술이전·사업화 **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**하기 위해 **개방형 민간교육 플랫폼**(교육기관 및 교육생 간접지원)**을 구축**하고 기술사업화 **전문코디네이터 및 '명장(名匠)'을 육성**하는 한편,

* 전문코디네이터 중에서 매년 10명의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독일 슈타인바인스 재단 등 해외선진기관에 파견 및 전문역량 강화('13년~)

○ 검색기능 강화, 소셜네트워크(SNS) 활용 등 **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(NTB)**을 **수요자 중심으로 개선**하고,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**기술평가 사례정보 구축과 '기술평가사'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**해 나가겠음

○ 현장의견 수렴 및 기술이전·사업화 정책자문을 위해 **'자문위원회'를 구성·운영**하는 한편, R&D 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**R&BD사업에 대한 체계적 성과분석**을 실시하고, 기술이전·사업화 예산을 **장기적으로 정부 R&D 투자의 3% 수준으로 확대**해 나갈 계획임

* 기술이전·사업화 예산비중(R&D대비, %) : (09) 0.91 → (10) 0.92 → (11) 1.07

참고 제4차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 요약

1. 추진배경

○ 「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법」 제5조에 의거, 매 3년마다 「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」을 수립하여 시행

- 제1차('00~'05년), 제2차('06~'08년), 제3차('09~'11년) 촉진계획에 이어 **제4차('12~'14년) 중기 촉진계획 수립 추진**

2. 추진경과

○ '11. 7월, **제4차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 TFT** 구성(kick off)

* 총괄기획, 기업혁신, 기반조성, 기술금융, 지식재산 등 5대 분과좋 구성

○ '11.8~10월, **TFT 분과위원회, 전문가 간담회, 정책연구용역** 시행

○ '11.11월, **제4차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(안) 관계부처 협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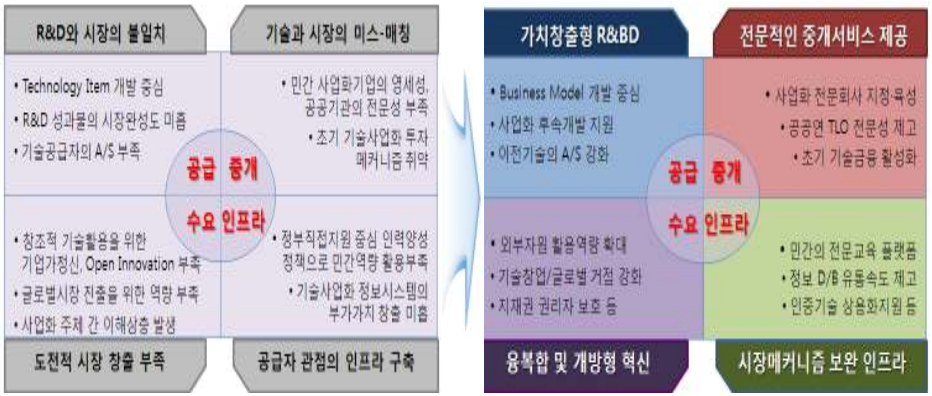
○ '11.11.23, **제4차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(안) 공청회 개최**

3. 촉진계획 추진방향

□ 정책방향

○ **정부주도·공급자중심**의 정책에서 **수요자중심** 기술사업화 체계로 **전환, 기술시장 주체**의 **역량강화** 등을 통해 **실질적 시장성과** 창출

< 기술이전·사업화 현황·문제점 및 개선방향 >



□ 기본 전략

VISION

기술과 시장의 善순환 생태계 조성

- 기술이전 · 사업화의 시장성과 제고 -

- 〔기술확산〕 공공연 기술이전율 : ('10) 23.1% → ('14) 27.0%
- 〔성과창출〕 이전기술 사업화성공률(누계) : ('10) 18.3% → ('14) 26.0%
- 〔시장확대〕 민간거래기관 평균거래규모 : ('10) 0.63억원 → ('14) 1.50억원
- 〔기업성장〕 기술도입기업 매출액 증가 : ('10) 12.5% → ('14) 15.6%

4대 핵심과제 · 14개 세부과제 추진

핵 심 과 제	세 부 추 진 과 제
1. 기술과 시장의 연계 활동 강화	① R&D 사전기획 강화 및 우수 BM 발굴 지원 ② R&D 사업화 프로젝트 및 후속지원 강화 ③ 이전기술의 시장·수요자 지향성 제고
2. 기술사업화 수행주체 (중개자) 역량 제고	① 민간역량 확충을 위한 사업화 기업제도 보완 ② 공공연 기술이전전담조직(TLO)의 전문성 강화 ③ 특허기술 사업화모델 확립 및 IP 비즈니스 확대 ④ 초기사업화 단계 기술금융 활성화 지원
3. 융복합 및 개방형 혁신 촉진	① 異種 기술·산업간 융복합 사업화 활성화 ② 기업가정신 제고 및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③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크워크 강화 ④ 이해상충 조정 및 대·중소기업 성과공유
4. 시장메커니즘 작동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	① 민간역량 활용,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② 통합적 사업화 정보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③ 사업화 제도 개선 및 인증기술 상용화 지원

4. 제4차 촉진계획 추진과제

1 기술과 시장의 연계 활동 강화 (공급 측면)

1 R&D 사전기획 강화 및 우수 Business Model 발굴 지원

○ **경쟁기획** 등 사업화전문가와 연구자가 **함께 연구기획을 수행**하는 **"先기획 後지원 방식" R&BD지원시스템**(PRE-Production) **도입**('12년)

* PRE-Production을 통해 대형R&D과제 사전기획비 지원 및 사전특허분석 등 강화

○ 미래수요 분석에 기반한 **글로벌 시장창출형 신규 비즈니스모델**(BM)을 **공모**해 **기획비를 지원**하는 "**창의 BM 공모사업**" 신설('12년)

* 창의 BM : 신규사업 발굴 및 창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

2 R&D 사업화 프로젝트 및 후속지원 강화

○ **R&D 기획단계**에서부터 **R&D 자금지원**(정부출연)시 **보증대출**을 연계하는 **R&D 프로젝트 금융지원** 실시('12년)

* 개발이후에도 사업화준비·양산 등 단계별 진도 점검을 통해 全주기 금융지원

○ 공공연 **후속연구**를 **先지원**(브릿지론)하는 **Gap Funding**('14년까지 공공연 출연금 등으로 100억원 조성) 및 기술이전후 **추가기술개발 지원 확대**

* 연구소 이전기술의 추가개발 지원 중심에서 대학 등 확산 추진

3 이전기술의 시장·수요자 지향성 제고

○ **기술이전계약시** 암묵지 전수, 추가연구 의뢰 등을 포함하고, 기술료 수입에 대한 **연구자 인센티브 지급**을 **수요자 중심**으로 **전환**('13년)

* 기업의 기술이전 완료 후 인센티브 지급 및 인센티브 배분비율(현행 50%) 조정

○ **사후기술지원(A/S) 계약**을 통해 기업 등이 계약기간동안 공공연 **개발자를 Project Director로 활용**하는 **"가이드라인" 제정**('12년)

* PD파견인력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활동후 연구과제 참여보장, 연구성과급 등 부여

2 기술사업화 수행주체(중개자) 역량 제고 (중개 측면)

1 민간 역량 확충을 위한 사업화기업 제도 보완

○ 사업기획, 기술관리, 사업투자 등 **全주기**에 걸쳐 **통합 비즈니스 서비스**를 제공하는 **"사업화전문회사"** 지정·운영('12년)

* 신사업아이템발굴, 신기술사업화연계, 글로벌협력촉진, 사업화후속개발 등 사업영역

○ **기술지주회사(子회사) 전용펀드 조성**(100억원 규모) 및 子회사 外 **他기업의 기술, 경영자문 등 업무범위 확대**('12년)

2 공공연 기술이전전담조직(TLO)의 전문성 강화

○ **기관별 내부규정 정비**를 통해 **전문인력 중심**의 **TLO운영** 강화 및 **기여자 인센티브 지급제도 내실화**('12년)

* 기관경영평가 및 TLO 지원사업 주요평가 항목으로 반영

○ **TLO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**하는 한편, 기술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**TLO 역량강화 등 재투자 등** 독립 TLO 운영기반 마련('13년)

* 등급별로 TLO 정부지원 차등화, 기술료 배분 조정(인센티브 하향, TLO 지원 상향)

3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확립 및 비즈니스 확대

○ **창의자본 활성화** 등을 통한 **IP Incubation 프로그램 본격 운영** 및 I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**특화펀드 조성**('14년까지 2,000억원 이상)

* '15년까지 6,0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 조성 및 매년 20개 이상 특허 풀(Pool) 구축

○ **기술신탁 운영 개선**을 통해 미활용특허 기술이전·활용을 강화하고, **중소기업 지재권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** 내실화('12년)

* 산업별 IP지원센터 지정·운영 및 중소기업 특허의 체계적 관리·보호·활용 시스템化

4 초기사업화 단계 기술금융 활성화 지원

○ **R&BD펀드, 특구펀드 추가조성**(각 500억원) 등 초기사업화 단계 기술투자를 확대하고, 유망기술정보 등 **기술금융 정보제공 강화**

* 산업기술진흥원의 정보망·네트워크를 활용한 '신산업 기술금융 정보센터' 개설·운영

○ **M&A 등 회수방법 다양화 및 중간회수시장 기능 강화**('13년)

* Secondary Fund 확대, M&A 제도개선 및 교육·컨설팅 강화, 프리보드시장 활성화

3 융복합 사업화 및 개방형 혁신 촉진 (수요 측면)

1 異種 기술·산업간 융복합 사업화 활성화

○ **공공연 융합기술센터** 중심으로 **産學硏공동 C&D**(Connect&Development) **연구 프로젝트** 발굴 및 **전용 R&BD 프로그램** 설계·지원('13년)

○ 미래유망분야 **융합기술 발굴 및 사업화**를 위한 **시스템 개선**('13년)

- **(국가차원) 기술사업화협의회**(TCA) 중심으로 "**사업화 융합포럼**" 개최 및 공동사업 발굴('기술이전·사업화 정책자문위원회'와 연계)

  * TCA('11.5월) : 테크노파크·기술거래기관·사업화기업·기보 등 사업화주체간 연합체

- **(지역차원)** 연구개발 기획/탐색 공동체로서 "**지식셀(Cell)**" **활성화**

2 기업가정신 제고 및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

○ 대학의 창업허브로 **'기업가센터' 확대**('13년 5개) 및 연구기관, 우수 연구인력이 밀집된 **대덕특구를 기술창업의 메카**로 육성

  * 대학생·청년·일반인 대상 '아이디어 기술창업 드림타운' 조성(특구본부) 및 연구원 대상 '연구원 예비창업자 지원센터' 운영(중기청, 연구원 예비창업자 육성프로그램 신설)

○ 중견기업, 지자체 등의 **오디션방식 R&BD프로그램 지원** 및 오픈 이노베이션 등 **기술경영을 체계화한 기업**을 **선별·포상**('12년)

3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력 네트워크 강화

○ **선진시장 및 신흥시장별** 차별화된 **글로벌협력·사업화전략** 마련

- **(선진시장) EEN**을 활용한 **공동협력**(EU), **글로벌펀드 조성**(북미) 등
- **(신흥시장) 정부간 협력채널**(동남아), **글로벌거점**(유라시아 등) 구축

○ **기술공급자**(TLO) **및 국내외 중개자** 컨소시엄의 **十字형 네트워크**(글로벌사업화네트워크) 구축을 통해 **선진기술시장 진출 등 성과** 제고

4 개발자·사용자간 이해상충 조정 및 대·중소기업 성과공유

○ **권리자 손해전보제도** 개선, **조정·중재 등**을 통한 지재권 **분쟁의 조기해결** 도모 등 汎사회적인 **지식재산 중시 문화** 조성('13년)

○ **대·중소기업간** 공동연구개발 성과배분에 대한 **가이드라인 제정**, 대기업, 공공기관 등 **미활용기술의 중소기업 이전** 활성화(기부채납 등)

4 시장메커니즘 작동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(Infra 측면)

1 민간역량을 활용한 기술이전·사업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

○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**개방형 "Edu-Biz Platform" 구축**을 통해 **민간교육 역량 제고·활용** 및 **교육기관·교육생 지원 확대**

  * 정부(KIAT)는 수요조사, 홍보, 평가 등을 통해 시장창출에 주력(간접지원 방식)

○ **강화된 인력양성** 과정을 통한 **기술사업화 전문코디네이터**(별도 자격검정) 및 우수인력의 **해외선진기관 파견**을 통해 **'名匠' 육성**

  * 체계적으로 육성한 名匠들을 글로벌R&BD, IP 인큐베이션 등 전문구루로 활용

2 통합적 사업화 정보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

○ **검색기능 강화, SNS 활용 등** 수요자 지향적인 **국가기술사업화 정보망(NTB)** 운영 및 기술금융 등 **全주기적 정보 통합시스템化**

○ **기술평가 사례정보 구축**을 통해 복수평가제 시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 **평가전문가 풀**을 활용해 **기술평가사 제도화 방안** 검토('12년)

  * 정부지원 펀드투자시 전문기관의 기술평가 의무화 등 평가수요의 점진적 확대

3 기술이전·사업화 제도개선 및 인증기술 상용화 지원

○ **「기술이전·사업화 정책자문위원회」 구성·운영**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조정기능을 지원하고, **장기적**으로 **사업화예산 확대**

  * R&BD사업에 대한 체계적 성과분석('12~)을 통해 전체 R&D 예산의 3% 수준 확대

○ 신기술(NET), 녹색기술 등 **인증기술의 상용화 지원**을 강화하고, 기술혁신형 인증제품 대상 **공공구매제도 통합운영방안** 검토('12년)

  *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통합구매 및 40% 이상 의무구매 관련 근거마련 등